

내장산 일대 사계절 관광인프라 구축된다

내장사·정읍시·내장산 국립공원 3개기관 협조 다져

가을단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 일대의 사계절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장사(주지 혜산)와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등 3개 기관이 공동협조체제를 구성키로 했다.

내장사·정읍시·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 등 3개 기관은 7월 9일 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내장사 주지 혜산 스님, 김생기 정읍시장, 이진법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장산 관광 인프라 구축의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3개 기관이 연계사업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3개 기관은 특히 단풍철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특히 사계절 관광위한 홍보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전 복원을 비롯해 생태연수원, 단풍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탐방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 등도 추진된다. 이날 내장사 주지 혜산스님은 내장사 대웅전 복원과 우화정 개축사업을 설명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KTX의 개통 이후 정읍의 접근성이 좋아져 단풍의 명소 내장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좋은 여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관광요소를 개선해야 한다. 내장사 등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내장사 대웅전 복원 및 환경개선 정읍시 생태탐방지 구축 협력 요청 관계자 팸투어 및 버스운영 추진

정읍시는 내장사 측에 생태탐방연수원이 적합한 위치에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생태탐방지 조성과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 시 상호협력을 요청했다.

이진법 국립공원사무소장은 "생태공원 등은 근린시설이 아닌 방문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그러



내장사·정읍시·내장산 국립공원 사무소 등 3개 기관은 7월 9일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에서 현장간부회의를 열고 내장산 일대 인프라 구축을 논의했다.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도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는 내장산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서울을 방문한 중화권과 동남아권 해외 관광객들이 '내장산 탐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전용 셔틀버스 운영안 등이 담겨있다. 또 해외 여행사 대표와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내장사는 2012년 화재로 소실된 내장사 대웅전 복원을 4월 7일 상량식을 거행한데 이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대웅전은 면적 약 166㎡, 정면 5칸, 측면 3칸 50명 규모의 팔작지붕 다포집 형태다.

혜산 스님은 "각계의 정성으로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명품 법당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금산중학교, 인성·리더십캠프 실시

금산사 템플스테이 수련원서 1박 2일간 진행... 62명 참가

전북지역의 유일한 종합학교인 동국대 부속 금산중학교(교장 조영석)가 인성교육과 리더십·금연캠프를 열었다. 7월 9일부터 1박2일의 일정으로 김제 금산사 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6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캠프에서는 조영석 교장 선생님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강연과 학교장과의 즉문즉답, 문화재 탐구, 초청 강연, 사찰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학생들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인 진선 스님과 함께 참선과 명상 전통적 예절교육시간을 통해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마음을 닦는 시간을 가졌다. 또 금산사 경내의 국보와 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

을 들으며 우리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기도 했다.

캠프에서는 연꽃작품 만들기과 108배도 진행됐다. 이어 김제 보건소 강영석 선생님 초청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한 생활 이야기' 강연과 최근 유행한 메르스의 예방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삶의 태도 강연, 이원일 금산사 사무국장의 어린이시절 꿈 이야기 강연 등이 진행됐다.

한편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습과 인격 연마를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전라북도 유일의 불교 종합학교로서 전라북도교육청 선정 혁신학교로 선정되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을미년 하안거 포살법회 봉행

7월 15일 100여 스님 동참해 원력 다져

고창 선운사(주지 경유)는 7월 15일 을미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봉행된 포살법회는 선운사 대종스님과 도술암, 참담암, 석상암 등 산내 암자, 말사 대종스님 100여 명이 동참했다.

선운사 주지 경유 스님을 법사로 진행된 이날 포살법회는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법망경> 보살심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독송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경유스님은 "계율은 중요한 실천덕목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올바른 가르침이다"

며 "포살법회를 계기로 대종스님들의 수행상을 점검하고 가람수호와 전법활동에 더욱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운사는 7월 28~30일 2박 3일간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는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배려심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어린이들은 예불 체험, 합장주 만들기, 행복한 부처님 노래, 명상체험, 부처 만들기, 물놀이, 향양엄플 만들기, 부모모중경 사경, 캠프피어, 수계식 등에 참여한다. (063)561-1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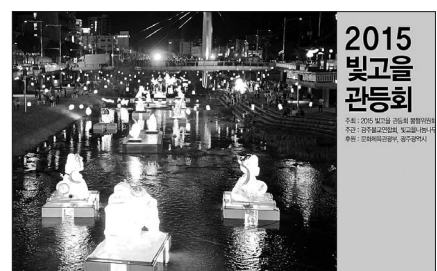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봉축행사 화보집 발간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동회'의 올해 화보집이 출간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7월 14일 '2015빛고을관동회'란 제목으로 봉축행사의 세세한 장면들을 담은 화보집을 냈다.

화보집에는 점등식, 관동법회, 제등행렬, 관동음악회, 공모사업 등 지난 4~5월에 진행된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사진과 소감문 등을 실었다.

연광 스님은 화보집 발간사를 통해 "올해의 봉축행사의 특징은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행사로 진



행했다"며,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사부대중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화보집 발간과 더불어 각 사찰, 불교단체, 관공서, 언론 등에 화보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 내소사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7월 11일 대웅보전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대웅보전에서 열린 개금불사 회향 점안법회에는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부안 실상사 주지 지안스님이 법주를 맡아 진행됐다.

내소사 주지 진학 스님은 "내소사 대웅보전의 주불인 석가모니불과 좌우 협시보살인 문수·보현보살상은 원만한 덕상과 단아한 종호로 많은 불자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개금의 연대가 오래되어 퇴색하여 그동안 개금불사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개금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내소사는 백제 무왕34년(633년) 혜구



두타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대웅보전(보물 291호), 봉래루, 영산회 괘불탱화(보물 1368호), 내소사 동종(보물 277호) 등 많은 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로 특히 전나무 숲길과 대웅보전의 보살화를 조각한 꽃살무늬 창살로 유명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지역 불교활동가 조현옥 시인 시집 발간

세월호의 아픔을 고뇌하는 불교시집이 나왔다. 광주지역 불교활동가인 조현옥 시인의 3번째 시집 '사월의 비가' 출간됐다. 이번 시집은 1~2부에 세월호의 침몰 이후 시인의 고뇌를 담은 작품을 담았고, 3~5부에 보림사, 도감사, 무위사, 은적사, 선운사 등 사찰기행을 시로 담은 작품을 담았다.

조현옥 작가는 "시를 많이 사랑하고 시

를 많이 읽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내는 시집이 부끄럽고 죄송한다. 시는 역사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시는 진실의 편, 정의의 편이다. 한 편의 시로 세상을 말할 수만 있다면 나의 고통은 즐거움이 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집은 수익금 전액을 광주근육장애인협회 후원 기금으로 사용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양양군, 낙산사 일대 디자인 개선 사업 시행

강원 양양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낙산도립공원이 정비됐다. 양양군은 7월 7일 8억9천500여만원을 투입해 진행한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시설정비 사업을 대부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로수가 훼손된 구간에는 해수를 심고 미관을 해치는 낡은 울타리와 간판 등은 철거했으며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낙산

광장 대형주차장에 LED 경관 조명을 설치했다.

양양군은 하반기에는 낙산사 대형주차장에 친환경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내년 도에는 21억원을 투입, 공원형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산사부터 지구 일구까지는 디자인 거리가 조성될 예정이다.

노덕환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www.hyunbulshop.com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mm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mm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mm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판매가 : 30,800원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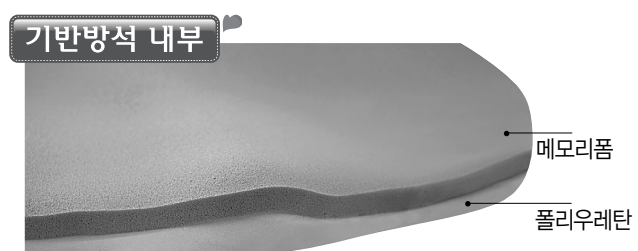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www.hyunbulshop.com